

21  
20 朝鮮の風水  
(조선의 풍수)

이 책은 조선총독부 조선자료 제 31집  
으로 1931년 2월 에 출간 했다 857쪽의 방대한 책이다

조선총독부 총독인 무라야마 (村山 智順)  
(1881~1968) 이다 각함이 총독이냐 동

정제-고등학교와 동정제국대회를 나온

서학이리 무라야마는 민간 신앙-부록서

조선의 취인)을 출간 한 적이 있고 이

No. \_\_\_\_\_ No. \_\_\_\_\_  
 어 제 <sup>3월</sup>부로 <조선의 무복(巫卜)> 등 출

No. \_\_\_\_\_  
 간행 계획이

저자는 이밖에도 <조선의 복장> <조선의  
 류사종교> 와 <조선의 시장연구> 등 많은 저  
 서를 남겼다

1933년에 손진태(孫晉泰) 선생은 이 책  
 등 ~~이~~ 대안한 책자라고 평하였다

저자는 우리 나라에 오래 머물러 있던  
 가- 1941년에 귀국했다

No. \_\_\_\_\_ No. \_\_\_\_\_  
 <서민지 통치론>으로 유명한 전 동경대학

총장인 야나기 바라 (矢内原忠雄) ~~교수~~ 은

이 상연에 대한 교재들을 습득해서 저

성한 명작이든 평하고 등주지리론 학회

때 이 책을 읽어야 한다고 말하였던

만한 그는 30대 초반에 이 책을 읽고

등주지리론 전공해 볼까 하는 생각

을 가진 적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귀하는 서문에서 이 책은 저술할 때

당시 이왕자 함봉이며 지관 (地官) 인

북청인 (北靑人) 전기음 (金淸庵) 씨의

도움이 컸던 것들을 많치고 있다

책의 내용은 1편 조선의 풍수 2편

문지 풍수 3편 주거 풍수로 구성 되어

있다 주거 풍수란 다시 국도(國都) 풍수,

터전의 풍수, 대성의 풍수, 토음 풍수 및

주택 풍수를 세분 되어 있다

주택 풍수에 대한 전국적 간지(間地)와 이사

에 대한 신앙이 첨가 되어 있다

이 책은 page마다 흥미진진한 내용

풍수가 많은 가림 우리 나라에 고루(高樓)

후 조선의 전통이 없는 이유 중 이렇게 기록

하고 있다 고려 흥선왕 (1295~1308) 때

왕이 중국과 같은 높은 관복을 지으

려 ~~했다~~ <sup>하자</sup> 관복서 (規儀署) 가 지은 하거를

조선 전기 (道說原記) 의 태조의 훈포 10조

에 ~~제정~~ <sup>존재</sup> 다산(홍익) 은 양(陽)인데 여기에

양인 고루(高樓)를 지으면 나라가 망하 ~~는~~ <sup>는</sup> 것이

~~아는~~ 예로 부터 금지 해 온 것이다

왕조 시대 우리 나라에 고층건물이 없는

것은 이와 같은 풍수지리설 때문이 있다

No

No

경북 선산 (善山) 은 예로부터 < 조선 인제  
 반은 명산에 있는 명산 인제 반은 < 善  
 (인산)에 있다 > 는 말이 있다 임진왜란 때  
 명나라 장수가 이곳을 지날 때 조선에  
 인제가 너무 많으면 ~~아니~~ 된다 하여  
 병풍을 하나쯤 선산을 뒷산맥을 짜르  
 면 동시에 석못을 파 왕기를 제압  
 했는데 그 후 이 많은 산물이 나지  
 않았다는 것이라 통

20X10

No

No

20X10

20X10

20X10